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5 호 8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5 호 (229)

1963년 8월 (상) (반 월 간)

차 례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 담보

백 선 일

현 시기 우리 당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가까운 년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로동 지출로써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소요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의 지출이 축감되면 될수록 1 인당 생산액은 제고되는 것이다.

단위 제품 생산에 투하되는 로동의 절약은 그 제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및 기술적 요인들에 의존한다.

따라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의 구체적 방도는 결코 고정 불변할 수 없으며 매 시기 매개 부문, 기업소에 따라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생산은 어느 때나 또 어느 부문에서를 물론하고 사람들을 로동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며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합리적인 결합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생산 수단의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리용, 로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성의 발양, 로동의 합리적 조직은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의 제고를 위하여 언제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며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 시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고리이다.

로동 행정 사업은 생산 과정에서 로동력의 합리적 배치와 로동 시간의 절약적인 리용을 통하여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조직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는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로동 행정 사업이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노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한 가지 실례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 상반년 기간에 고원 탄광에서는 탄광의 기술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로동 정량 사업을 개선하고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지난해보다 갱내 로력 비중은 4%, 그 중 직접공의 비중은 2% 더 제고하였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한 결과 채탄 및 굴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112%로 제고시켰다.

이 사실은 오늘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로동 행정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린다면 1 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허다한 예비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당이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 제고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로동 행정 사업 강화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로동 행정 사업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로동 조직 사업의 개선 강화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 된다. 그것은 로동 조직의 구체적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며 로동 조직 사업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조건에서만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가장 완전한 리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로동 조직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면 산 로동과 체화 로동의 막대한 랑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는 실제 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로동 조직은 본질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로동력의 합리적 배치와 로동 시간의 절약을 위한 방법이다.

기술 혁명의 현 시기에 로동 조직 사업에서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도에 적응하게 로동을 생산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산 과정과 기술 공정의 특성에 적응하게 작업반과 교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로동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개인적 능력과 재능, 그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도록 로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체질, 기능, 경험, 취미, 성별, 희망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 공정의 기술적 특성에 따르는 공정별 표준 로력 조직표에 기초하여 로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로동력의 생산적 리용을 위하여서나 일'군들의 생산 열의를 높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이 실현됨이 없이는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완전히 리용하지 못하며 생산자들의 개인적 능력과 창조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지 못할 것이며 결국 동일한 로동 지출로써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전 사회적 규모에서 볼 때 로동력의 생산적 리용은 로동력의 적재 적소의 배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합리적인 균형에 의하여서도 조건지어진다. 어느 한 부문에는 로동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에 다른 한 부문에는 로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관리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일'군수를 필요 이상 증가하거나 로동 과정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남녀 로력의 배합을 되는 대로 할 경우에는 로동력의 랑비를 초래하고 생산 장성을 보장하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인민 경제 부문 간(특히 공업과 농업 간),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 생산 부문과 비생산 부문 간, 기본 생산 부문과 보조 생산 부문 간, 남성 로력과 녀성 로력 간의 로동력의 합리적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현 시기 로동력의 합리적 리용과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근로자들 속에서 자각적이며 엄격한 사회주의적 로동 규률을 확립하는 것은 로동 조직의 주되는 내용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적 로동 규률을 강화함이 없이는 현대적인 대기계제 생산 자체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왜냐 하면 최신 과학과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기계제 생산은 그 자체가 로동력과 생산 수단, 로동자들 호상간에 있어서 보다 조화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도가 높고 련쇄 공정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느 한 부문의 한 로동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기술 공학적 요구의 위반이라도 그것은 기계의 불완전한 리용과 지어 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련쇄 공정 전체의 생산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로동력 대렬 내에는 로동과 규률 생활에서 오래 동안 단련되고 익숙하지 못한 수 많은 신입 일'군 특히 가정 부인 로력들이 다수 인입된 사정 등이 로동 규률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로동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 시기 로동 규률 강화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 특히 규률을 제일 생명으로 여긴 항일 유격대원들의 고귀한 품성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해설 침투시키는 한편 세밀히 짜고 들어 매개 일'군들이 자각적으로 규률과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조건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이고 작업 휴지 시간을 근절하며, 모든 일'군들이 생산 과정의 질서와 기술 공학적 제 요구들을 엄격히 준수케 함으로써 로동 과정에서 사소한 시간 랑비와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로력의 류동과 류용을 방지하며 출퇴근 제도를 엄격히 확립하고 모든 일'군들에 대한 사업 분공과 총화를 제때에 하는 등 로력 관리 질서를 엄격히 확립함으로써 로력의 사소한 랑비 현상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작업반의 역할을 일층 높이며 교대별 생산 지휘 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제고하며 그들을 작업장으로부터 빈번히 유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는 각이한 작업들에 대한 정확한 시간 소비의 기준 설정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시간 소비 기준이 없이 로동 용량의 축감이란 있을 수 없다.

각이한 작업들에 대한 시간 소비의 정확한 규정은 로동 정량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 정량 사업은 과학적인 실사 사업을 통하여 로동 시간 소비를 구체적으로 관찰 분석 연구함으로써 생산에 작용하고 있는 제 요인들을 해명하고 시간 소비의 크기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게 한다.

이로부터 로동 정량 사업을 변천된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것은 과학적 로동 조직의 필수적인 기초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관철을 위한 전제로 된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에 있어서 로동 정량의 적극적 역할은 그것이 생산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문화 기술 수준, 도달된 로동 과정의 기술적 장비의 수준에 완전히 적응될 때 더욱더 커진다.

기업소의 기술적 장비가 현저히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이 비상히 제고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동 정량 수준이 뒤떨어진다면 그 때에는 일'군들 속에서 로동 용량의 가일층의 저하를 위한 투쟁 의욕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오늘 일부 기업소들에서 조성된 구체적인 경제 기술적 조건에 적응하게 로동 정량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재사정하지 않고 수년 전의 낡고 보수적인 로동 정량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임금 지불에서의 불균형과 로임 폰드의 부당한 초과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새 기술 및 새 작업 방법의 창안 도입을 방해하며 생산 내부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실 기술적 진보가 촉진됨에 따라서 손 로동이 기계 로동으로, 능률이 낮은 기계가 능률이 높은 기계로 부단히 교체되여 나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 그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로동 정량을 옳게만 제정한다면 그 수준을 로동 강도의 제고 없이 현저히 제고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들이 있다. 이것은 막대한 생산적 예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할 이 때 로동 정량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로동 정량 재사정 사업을 작업 과정과 로동 정량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제때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부문 간, 직종 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로동 정량 사업을 정량 일'군들에게만 일임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지도 일'군들이 직접 틀어 쥐고 조직하는 데 신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는 생산자 대중의 자각적인 창조적 열성에 의존된다. 그것은 생산자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이야말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결정적 담보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로력적 열성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강화에 의하여 더욱 제고된다.

특히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이 강화될수록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과 로동에서의 자각적 헌신성, 창발성은 더욱 높아진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일'군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특히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선 가

장 중요한 당적 과업이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은 반드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대중의 정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이에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키는》(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49 폐지)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모든 경제 기관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특히 로임 조직과 지불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임 사업 분야에서 내재하는 결함들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정확히 분배하는 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동일한 로동 지출로써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욕과 열성을 비상히 제고시킨다.

로동 임금의 고무적 역할은 그것이 근로자들의 로동의 량과 질에 엄격히 의거하여 정확히 분배될 때에만 가능하다. 로임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일'군들 속에서 안일성과 해이성을 조성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 습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량립될 수 없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의 임금 기능 등급을 제때에 정확히 사정하며 현행 임금 등급제에 립각하여 직종을 정확히 적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도급 로동 임금제를 광범히 적용하는 것이다. 도급 로동 임금의 정확한 조직은 생산과 분배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생산 과제의 성과적 수행에로 일'군들을 의식적으로 조직 동원하는 경제적 공간으로 된다.

작업 과정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 방도이다.

기술적 진보는 손 로동을 기계 로동으로, 중로동을 경로동으로, 유해 고열 로동을 무해 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보다 적은 산 로동 지출로써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기술을 발전시키며 그를 완전히 생산에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기술과 기능을 소유한 일'군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높은 생산적 기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통솔 하에서만 기술은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와 사회적 부의 부단한 증대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군들의 기술 기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은 기술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 요인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부단한 향상은 일'군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전면적인 발전과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점차적인 소멸을 촉진하며 로동력 구성에서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로동 조직을 변화된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의 부단한 앙양을 보장한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성인 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생산 기업소 내 기술 기능 학습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라는 당의 구호가 실생활에 구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90~91 폐지)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근로자들이 복잡한 기술 공정과 자기가 다루는 기계 설비의 구조 작용 원리에 정통하고 그를 능숙히 운영하며 당면 과업 해결에서 절실한 기술적 제 문제들을 솜씨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동 보호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로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들의 건강을 백방으로 보호 증진하는 필수적인 담보로 된다. 로동 보호 시설을 백방으로 개선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 보호 안전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로동 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녀성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은 현 시기 로동 보호 사업 앞에 나선 중심적 과업이다.

* *

상술한 바와 같이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에 있어서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을 금년도 10 대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상응하게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의 책임 일'군들로부터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일'군들이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관리의 중요한 과업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통일적인 련관 속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부과된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결정적 력량으로 되는 사람, 근로자들의 일하는 문제를 자기의 사업 대상으로 하는 로동 행정 사업을 떠난 기업 활동이란 있을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 행정에 대한 지도가 상, 부상, 관리국장, 지배인, 기사장들의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은 오직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를 각급 경제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심장으로 접수하고 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할 때에만 일어 날 수 있다.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성을 비롯하여 도, 시, 군 인민 정권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일층 제고하며 기관, 기업소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사업을 일층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로동 행정 사업은 원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필수 불가결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민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지방 정권 기관들이 담당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의 향상은 오직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만큼 로동 행정을 떠나서는 인민 정권 기관들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지방 정권 기관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로동 행정에 대한 감독 통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이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경제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당의 로동 정책을 정확히 집행케 하는 적극적 조치로 된다.

물론 지방 정권 기관들의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적 기능은 조직 지도 기능과 분리할 수 없다. 이 량자는 인민 정권 기관들에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문화 교양자적 기능의 두 개의 측면이다. 그러므로 로동 행정 사업에서 지방 정권 기관들은 감독 통제적 역할과 조직 지도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 행정 사업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의 철저한 구현- 이것은 우선 모든 사업에서 첫 공정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군중 속에 들어 가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세밀히 짜고 들어 광범한 근로 대중을 당의 로동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이 사업을 생산자 자신들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각급 경제 기관들과 지방 정권 기관들은 계획적으로 생산 현장에 접근하여 근로자들 속에 당의 로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설 침투시키며 로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고리를 풀어 줌으로써 사소한 로력의 랑비 현상이라도 방지하고 당의 로동 정책 관철에 생산자 대중을 적극 인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정 태 식

1953년 8월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는 전쟁의 페허 우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을 경제 건설의 로력적 전선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킨 력사적 회의로서 우리 당 력사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복구 시기 뿐만 아니라 전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는 전쟁의 페허 우에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닦으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단시일에 회복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경제 건설에서 기본 로선으로 제시하였다.》 (김 일성,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5 페지)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확고한 주체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레닌주의 경제 리론을 나라의 력사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이겨 내면서 이 로선을 견지함으로써 전후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형편과 생산 기술적 조건에 상응하게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전반적 경제 부문의 종합적 균형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달성하였으며 가장 빠른 길을 따라 우리 나라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켰다.

오늘 우리 나라는 지난날의 락후한 농업국의 처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현대적 공업과 농업, 발전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생활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가지는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여 주고 있으며 이 로선의 관철을 위한 당의 탁월한 령도와 능숙한 솜씨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 *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 형편으로부터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인민 경제의 기본적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최단 기간 내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나아가서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구축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하는 당의 이 로선이 전후 경제 건설의 당면한 과업과 함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것임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로 제기되였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튼튼히 건설함으로써만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근거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주의적 의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기본 내용에 대한 완벽한 규정을 주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중공업, 경공업, 농업 제품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달성하며 인민 경제의 생산 부문들의 다방면적이며 자주적인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로 유기적으로 련결될 것을 요구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 사회적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부문 구조의 다면성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자연 부원의 최대한의 개발과 합리적 리용을 가능케 하며 기술적 진보와 생산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된다.

사회적 수요와 사회적 생산물 및 사회적 생산은 량적 규모와 질적 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제약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적 수요가 량적으로 장성하고 다면성을 띠면 그에 따라서 사회적 생산물도 장성하고 다면성을 띠여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부문 구조의 다면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적 및 개인적 수요의 부단한 증대는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부문 구조의 다면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에 상반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다방면적 경제만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현하면서 지하 자원, 산림 자원, 수산 자원 등을 전면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축차적으로 련계된 생산 과정을 따라서 자원의 모든 속성을 남김없이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자연 지리적 유리성에 기초하는 경제 부문의 일면적 발전은 낡은 사회의 기형적 분업의 잔재를 청산할 수 없게 하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없게 한다.

생산력의 발전은 새로운 부문을 창설하고 기존하는 부문을 개건 확장하며 그들 간의 생산 기술적 련계를 강화한다.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창설되는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는 필연적으로 다방면적 경제 구조를 창설하는 데로 나아간다. 다방면적 경제 구조의 창설은 인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고 민족 간부의 튼튼한 대렬을 가지게 함으로써 생산력의 인적 요인을 조성한다. 그 누구도 개별적 나라들의 세기적 락후성의 청산과 생산력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다방면적 경제 부문의 창설을 부인할 수 없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케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는 데 있다. 즉 그것은 복구기의 시초부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과 경제의 자주적이며 다방면적인 구조를 보장하는 자립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전후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중공업이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하여 더욱 혹심히 파괴되였고, 생산적 고정 폰드의 파괴로 전반적 경제 부문의 복구가 처음부터 신설과 기술적 개건의 성격을 농후하게 띠였으며, 자연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공고한 공업 원료 기지를 조성함이 없이는 경공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없는 조건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는 것은 복구기의 과업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할 데 대한 전망적 과업을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였다.

당은 경제 리론의 초보적 원리와 나라의 경제 형편에 대한 상식적 료해도 없이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방법을 모방하여 나선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우경적 시도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으며 자립 경제의 기초이며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밑천인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기계적 생산 체계에 기초한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Ⅰ 부류와 Ⅱ 부류의 장성 속도와 구조를 규정한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과 소비재 생산의 필요한 발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은 사회적 재생산의 필수적 요구이다.

특히 인민 생활의 령락, 경공업과 농업의 락후와 파괴 등 전후에 조성된 사회 경제 형편은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강행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재 생산을 희생시키는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은 경제 구조의 자립성과 다면성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시급히 개선하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중공업 건설의 기본 방향과 선후차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경제 건설의 전반적 속도와 부문 구조의 합리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중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기본 로선의 본질적 특징은 인민 생활의 향상과 직접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두어 중공업을 발전시킨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인민 생활의 향상과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과의 긴밀한 련관 속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도로 된다.

전후에 파괴된 중공업을 복구하고 나아가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기 위해서는 중공업 내부에서도 생산 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장성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전후의 과업이 풀릴 수 없었다. 경공업,농업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의 대대적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공업의 구조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공업 부문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되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선집 제 5 권,173 페지)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재 생산과 직접 관련되였거나 비교적 짧은 생산 순환을 거쳐서 소비품 생산에 복무하는 동시에 자립적 중공업 건설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중공업 부문이 중점적으로 복구되고 선차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은 국가 축적이 증대되고 공업화와 기술 혁명이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서 비교적 오랜 생산 순환 끝에 소비재 생산과 관련되는 생산 부문도 점차 확대 발전시켰다. 물론 경공업과 농업이 동시적으로 발전하는 조건에서 인민 생활 향상과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두는 중공업 건설의 기본 방향은 계속 견지되였다.

중공업 건설에서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방침은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과의 긴밀한 련관 속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실현케 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인민 경제 발전의 골간을 꾸리면서 인민 생활의 개선을 촉진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제한된 자금, 자재,설비와 로력을 가지고 중공업을 위주로 하는 전반적 생산 부문을 발전시키는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에 겨운 일이였다. 이것은 오직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민족적 특성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주체적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믿고 자력 갱생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을 관철하였으며 모든 물질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　　＊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에 의한 기본 로선의 관철 과정은 짧은 기간 내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기본 로선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구현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의 기본적인 부문들인 중공업, 경공업, 농업 간에 유지되여야 할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로선에 구현된 속도와 균형의 특성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방대하고도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절박한 요구로부터 규정된다. 균형의 특성은 모든 생산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장성하는 중공업과 동시적으로 발전하는 경공업,농업과의 배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균형의 특성이 속도의 특성에 반영된다. 우선적으로 장성하는 중공업은 경공업,농업이 급속히 발전하도록 강력히 이끌어 가며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은 중공업의 발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함으로써 전반적 부문들에서 항구적으로 비상히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전반적 부문들에서 적극적 균형과 비상히 높은 속도의 항구적 보장—이것은 기본 로선에 구현된 속도와 균형의 근본적 특성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그의 높은 속도가 인민 경제의 전반적 부문에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균형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현되는 데 있다.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로동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높은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당의 정책과 령도에 의해서 규정된다.

주관적 욕망에 따라 높은 속도만을 일면적으로 추구하여도 안 되지만 특히 기존하는 균형을 숙명적인 것으로 우상화하고 속도를 소홀히 하는 우경적 편향은 발전 과정에서 생산력과 재생산 조건이 부단히 변동하는 사실을 보지 않으며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에서 속도가 주되는 것이고 균형은 그에 복종되는 수단이란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저애하는 아주 유해로운 것이다.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하면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에 대한 이러한 편향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민족적 단위에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전반적 부문의 종합적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계속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은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창조력에 의거하고 모든 생산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기본 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인민 경제의 전반적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을 통하여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로선이 관

철되는 과정에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발전 속도 상호상 관계는 아래와 같다.

	중공업		경공업		농업	
	%	계수	%	계수	%	계수
1954~1956년	405	1	209	0.52	139	0.34
1957~1960년	361	1	332	0.92	140	0.39
1961~1967년 *	320	1	310	0.97	240	0.75

* 계획 수치임.

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행하고 자립적 경제 토대가 강화되는 과정에 중공업,경공업, 농업의 발전 속도는 더욱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가장 빠른 길을 따라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적 생산 부문의 장성 속도에서 구체적인 호상 관계를 합목적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또한 기본 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생산력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강화되였으며, 인민 생활의 향상과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두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당의 방침이 일관하게 견지되여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최대한으로 복무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발전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간격이 조성된 것은 전쟁 과정에 경공업에 비하여 중공업이 보다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1949년에 비하여 1953년에 중공업은 42%, 경공업은 99%의 생산 수준에 놓여 있었다. 3 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은 4배, 경공업은 2.1 배로 장성시킨 결과 공업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비중은 38:62로부터 54:46으로 변하였으며 전쟁 전 상태에 접근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전쟁의 피해가 혹심하였던 당시의 특수한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했던 복구기의 과업에 적응하게 기본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3 개년 계획이 수행된결과 중공업의 밑천이 마련되고 거대한 생산 잠재력이 조성되였다. 이 밑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더욱 강화한다면 더욱 큰 과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질적 밑천과 경제력이 있었음으로 하여 당은 5 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대담한 과업을 제시할 수 있었다. 강력한 중공업을 경공업, 농업의 발전에 최대한으로 복무케 하고 발전 속도를 합리적으로 접근시킴으로써 이 과업은 훌륭히 수행되였다.

5 개년 계획이 천리마의 속도로 초과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 생산 관계는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물질 기술적 토대는 강화되였으며 인민 생활도 근심 걱정 없이 되였다. 그러나 나라의 세기적 락후로 하여 아직 생산력과 인민 생활은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하였다.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7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축성된 물질 기술적 토대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강력한 중공업을 경공업,농업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부문 간 발전 속도를 접근시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당은 개건기에 들어 와 중공업, 경공업, 농업 간의 발전 속도를 접근시키는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투자의 크기와 효과적 리용, 생산적 고정 폰드의 상태와 기술적 진보, 기계 설비, 자재와 생산 면적의 합리적인 리용 정도,내부 예비의 적발 동원 등 부문 간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리용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자립 경제의 건설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 요구되는 소비품을 생산 보장하였다.

부단히 장성하는 국민 소득 가운데서 높은 비률로 설정된 축적 폰드는 전반적 부문이 높은 속도로 장성할 수 있는 경제적 원천으로 된다. 경제 발전 수준, 부문 구조의 특성, 재생산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각이하게 설정된 축적 폰드는 비생산적 건설에 비해서는 생산적 건설에, 농업에 비해서는 공업에, 경공업에 비해서는 중공업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으로 배분됨으로써 기본 로선의 성과적 관철을 보장하고 전반적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복구, 개건 확장과 신설의 합리적인 배합, 건설의 집중화와 건설 기간의 단축, 건설의 공업화와 질제고 등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현존 설비와 로력과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할 데 대한 방침,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 지방 공업의 대대적 발전,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 등 우리 당이 기본 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취한 그 모든 대책들은 모두가 적은 자금으로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라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였다.

당에 의한 완충기의 설정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나아간 5 개년 계획의 수행 과정에서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 특히 농업 부문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긴장성을 풀고 약한 부문들을 추켜 세움으로써 낮은 단계의 기존하는 균형으로부터 질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의 균형에로 계획적인 이행을 보장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기본 로선을 관철하는 도상에서 높은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창조적으로 해결한 정확한 조치였다.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인 7 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서서 우리 당이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장성 속도를 최대한으로 접근시킨 것은 5 개년 계획 기간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리용할 것을 타산한 정확한 조치이다. 5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예견된 기본 투자의 136%가 4 년간에 지출됨으로써 중공업의 토대는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으나 부차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 하였으며 상당한 생산 예비와 잠재력이 조성되였다. 중공업에 살을 붙이는 당의 방침은 부문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품종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부문 및 공정 간의 생산 기술적 련계의 균형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적은 자금으로 짧은 기간에 중공업의

토대를 강화하고 소비재 생산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투자의 4.4%를 리용하여 3.2 배의 생산 장성을 가져 올 것을 예견한 지방 산업의 발전은 소비재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중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발전 속도를 보다 접근시킬 것이다.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전후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발전은 접근되고 부문 간의 균형이 확고히 보장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매년 30~40%란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생산 수준과 구조, 기술적 장비도, 내부 예비의 크기, 린접 부문의 상태, 해당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동이 경제 부문에 따라서 각이한 조건 하에서 특히 비상히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 간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당이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에 기초하여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부문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비상히 높은 경제 발전 속도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경험은 물질적 조건과 현실적 가능성에 엄격히 기초하고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높은 속도는 어느 때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시하고 있다. 《경제 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가능성에 엄격히 립각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불균형을 조성하지 않는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52 페지)

생활은 기본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립 경제 건설의 가장 빠른 길을 걷게 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물질적으로 힘 있게 확증하고 있다.

*　　　*

전후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철저히 관철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 개년 계획 기간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였으며 5 개년 계획의 수행으로 그것은 확고한 것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락후성은 완전히 청산되고 생산 수준, 기술 장비, 부문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 났으며 경제의 다면성, 균형성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보장된 결과 무엇보다도 자립 경제의 기초로 되는 기계, 금속, 화학, 전기, 석탄, 건재 등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창설 강화되였으며 공업 내부에서 중공업의 비중이 훨씬 제고되였다. 강력한 기계 공업의 창설, 중공업 비중의 제고,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유기적 련계의 강화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단을 공급하고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밑천을 마련한 것으로 된다.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 하에 경공업의 세기적 락후성도 청산되였다. 방직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식료품 공업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일용품

공업도 급속히 장성하였다. 경공업 구조의 다면성과 자립성이 보장됨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였다.

다음의 표는 우리의 공업이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자립적 구조를 확립하였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 준다.

(%)

	1944년	1960년	1962년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1.6	21.3	23.0
광석 채굴업	15.7	4.0	3.1
야금 공업	13.3	6.8	6.6
림산 및 목재 가공업	20.0	2.9	2.7
방직 공업	6.0	16.8	16.8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	7.8	14.4	15.5

사회주의 공업의 거대한 지원 하에 농업 부문에서는 알곡 생산에 편중되였던 일면성이 청산되고 생산의 다각적 발전이 보장되였다. 식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축산, 공예 작물, 과수 등 제 부문들이 골고루 갖추어짐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은 더욱 강력한 식량 기지로, 원료 기지로 전변되고 있다.

농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장성하는 조건 하에서 부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1946년	1960년
농 산 부 문	90.8	77.2
축 산 부 문	8.4	17.3
잠 업 부 문	0.6	2.3
기　　　타	0.2	3.2

자립 경제 건설에서 거둔 성과와 인민 경제의 공고성은 대외 무역의 구조에서도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수출품 류별 구성　(%)

	1953년	1960년
기계 및 설비	0.4	5.3
광 물 류	81.8	12.8
흑색 및 유색금속	9.0	43.7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로선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 자립적 경제 구조가 창설되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체의 힘으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계속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과학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로선에 확고히 립각하여 7 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후손 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고 조선 혁명의 완수를 위한 물질적 담보를 공고히 한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강력한 혁명적 력량을 준 것으로 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

리 진 훈

1

현 시기 당원들과 일'군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과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제반 요구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수행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리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은 맑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해명되였다.

《로동 계급의 해방은 로동 계급 자체에 의하여 전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한, 온갖 계급적 지배의 근절을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맑스는 지적하였다. (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1963년 판, 414 페지)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 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렬을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근로자로 만들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완전히 청산하고 로동 계급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전체 피압박 근로 대중을 해방하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래의 모든 사회혁명은 하나의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어 놓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혁명은 한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착취 형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버린다.

그런 만큼 이 혁명은 반혁명의 측으로부터도 가장 날카로운 반항을 불러 일으키는 격렬한 판가리 싸움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주권의 전취로서 이미 성숙된 자기의 사회적 관계를 합법화하면 되였던 종래의 혁명들과는 달리 주권을 쥔 때로부터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만큼 이 혁명은 온근 한 개의 력사적 시기를 요하는 장기적 사업으로 된다.

참으로 공산주의 혁명은 심각하고,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세계사적 사변으로 된다. 여기에 바로 이 혁명의 특성이 있다.

이 혁명은 로동 계급 외에 그 어떤 계급도 책임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 수단을 박탈 당하고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가장 가혹하게 착취, 략탈 당하는 계급이다. 로동 계급은 이 사회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이러한 처지를 면할 수 없다. 이 혁명에 대하여 로동 계급은 어느 계급보다도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진다.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잃을 것은 철쇄 뿐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은 또한 물질적 부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 력량이며, 대산업과 련결되여 있는 가장 조직되고 선진적인 계급이다. 이여의 모든 계급들은 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하며 보수적으로 되는 반면에 로동 계급은 더욱더 장성하며 조직화되고 혁명적으로 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사적 과업은 오직 로동 계급만이 담당 수행할 수 있으며 오직 로동 계급만이 이 혁명에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각국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종국적 이행을 보장하는 전 기간에 있어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이 령도적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이 혁명 투쟁의 도중에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처럼 관료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 하에 그들의 령도적 역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도중에서 포기하게 하자는 것이며, 로동 계급을 혁명으로부터 물러 서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로동 계급을 다시 부르죠아지의 임금 노예로 떠밀어 넣자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산주의자들과는 인연이 없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여 왔으며 또 전개하고 있다. 당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을 로동 계급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동시에 그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계급적 진지를 꾸려 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민 대중을 비롯한 각계 각층 군중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자기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 계급을 따라 혁명에서 로동 계급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각오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우리 사회의 확고 부동한 정치-도덕적 통일—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령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중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대중을 더욱더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과 그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적 투지, 책임감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2

로동 계급은 자기 앞에 제기된 이 력사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결을 첫째 가는 무기로 간주한다.

부르죠아지는 결코 자발적으로 로동 계급에게 주권을 넘겨 주지 않는다. 적수 공권의 로동 계급은 조직되고 단합된 힘으로써만 부르죠아지에게 대항해 나설 수 있으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

로동 계급은 당의 주위에 뭉쳐야 하며 동시에 자기의 주위에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 우선 농민 대중을 단합시켜야 한다. 로동 계급은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과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부르죠아 정권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을 비롯한 각계 각층 군중들 사이에는 근본적 리해 관계에서 공통성이 있다.

로동 계급은 이 공통성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 군중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농민, 수공업자, 모든 소부르죠아 계층들은 자신의 소생산자적 제약성으로 하여 계급 투쟁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력량으로 나서지 못한다.

따라서 로동 계급은 이들을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고 령도하여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그래야 로동 계급 자신도 해방될 수 있고 모든 피착취 대중을 다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 가는 필수적 요구로 된다.

현 시기에 있어서 국제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자기 나라에서의 광범한 대중과의 통일 단결과 더불어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단결 특히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수호하는 것이 긴절한 과업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 진영 인민들의 혁명적 전취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피착취 근로 대중의 보귀한 전취물이다.

그 만큼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사회주의 진영이 《용허》될 수 없는 투쟁 대상이다. 그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와해 분렬시키려는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반대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만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떠들면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이 반중국 깜빠니야에 합세해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통일이 아니라 분렬주의에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찌또 도당을 두목으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반중국 깜빠니야에 정신이 없는바 이것은 결국 자기들의 단결의 구호가 분렬주의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할 따름이다.

과거 쏘련 한 나라가 사회주의로 나갈 때 이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였으며 따라서 이것은 단결의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는 립장을 떠나서 단결에 대하여, 국제주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중국 소동과 그에 발맞추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3

로동 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을 단합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대중의 사상적 무장에 항상 일차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대렬의 통일 단결을 위한 투쟁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의 공고성은 그것이 동일한 사상, 로동 계급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있다.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로동 계급의 그것으로 무장되는 그 만큼 단결의 기초도 강화되는 것이다.

대중은 오직 로동 계급의 사상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될 때에만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힘과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을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그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계급적 립장, 혁명적 투지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은 부르죠아 정권을 타도하고 부르죠아를 산생시킬 수 있는 온갖 물질 정신적 바탕을 청산하는 과업을 내세우니 만큼 대중으로 하여금 우선 자본가, 지주 등 착취 계급과 그 제도 -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착취적 본질을 똑똑히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이 혁명은 대중의 단합된 력량을 요구하니 만큼 그들에게 집단주의와 애국주의, 국제주의 등 련대성의 사상을 부단히 주입하여야 한다.

이 혁명은 전례 없이 간고하고 치렬한 혁명인 만큼 일시적 곤난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대중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부단히 주입하여야 한다.

이 혁명은 근본적인 것 만큼 또한 장기성을 띠며 수다한 고지들을 돌파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으로 하여금 투쟁의 길에서 일시적 승리와 한 두 고지의 점령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계급 의식과 혁명 의식을 주입해야 할 필요성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있어서 더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 세계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렬하게 진행되며 제국주의의 사상적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는 데 기인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된 후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낡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남아 있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계급 의식, 혁명 의식 교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계급적 원쑤들의 본성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더욱더 자라 나고 있는 데 있다.(아직 한 쪽에는 계속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동시에 계급 교양 강화의 필요성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해독스러운 책동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특히 국토의 절반 땅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해 있고 거기에는 계속 착취 제도가 남아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계급 교양의 필요성은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조선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인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해야 하며 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한 부대로서 세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조선 혁명의 승리와 세계 혁명의 승리는 다 같이 장기간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 군중의 사상적 무장이 튼튼해야 어떠한 환경에서나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자기 나라에서와 세계에서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철저히 싸워 나갈 수 있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의 적들이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바로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주되는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됨으로써만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렬 내에 적대 사상의 침습을 방지하고 투쟁에서 단결과 혁명적 립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사업 특히 그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 언제나 심중한 관심을 돌리면서 이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4

맑스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이 천명된 이후 지난 한 세기의 력사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전위 부대들이 맑스주의의 기치를 추켜 들고 부르죠아지의 아성에 련속적 타격을 가하는 위대한 혁명 투쟁과 승리의 기록으로 충만되여 있다.

영웅적인 파리의 로동 계급은 부르죠아지의 정권을 타도하고 72 일간의 독재를 실시하였다. 로씨야 로동 계급은 레닌 당의 령도 밑에 10월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의 기치를 따라 또한 세계 10억의 인류가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였고 통일된 진영을 형성하였다. 오늘 세계 령토의 4 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기'발이 휘날리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장성은 제국주의 세력의 몰락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모든 피착취 계급, 식민지 약소 국가 인민들에게 강력한 혁명적 작용을 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7억 이상의 인민들이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과 아직도 식민지 멍에에서 허덕이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국제 부르죠아지의 후방으로부터 지금은 제국주의를 적극 반대하며 주동적으로 국제 정치 생활에 참가하는 력량으로 되였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이러한 제반 력사적 승리는 결코 평탄한 로정에서 달성된 것이 아니다. 국제 부르죠아지와 모든 낡고 부패한 계급, 계층, 세력들이 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치를 없애버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련합되였다. 그들은 직접 간접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 문화적으로, 공개적인 또는 은폐된 책동으로 사회주의 나라들과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전위 부대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반동의 이러한 련합된 세력과의 투쟁에서 또한 반동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대렬 내의 타락, 변절자들과의 투쟁에서만 자기들의 승리적 로정을 개척해 나올 수 있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가는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은 급속하게 장성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제국주의는 자기의 마지막 지반을 보존해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며 반공산주의 깜빠니야에 광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운동과 특히는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국제 반동과의 앞으로의 투쟁은 더욱 치렬할 것이며 혁명은 간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 앞에서 주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 앞에는 혁명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적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려는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견결성이 요구된다.

국제 혁명에 대한 책임성은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조선의 로동 계급과 조선 로동당은 조선 혁명을 잘 해야 한다.

《조선에서 태여 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조선 혁명은 조선 사람에게 분공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 혁명을 잘 해야 국제주의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김 일성)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조국을 통일하고 우리의 강토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으로써만 자기의 숭고한 민족적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는 자력 갱생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그 기초 우에서 또한 국제 혁명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주어야 한다.

현 시기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국제적 임무는 식민지 약소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자인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 수행에서 무엇보다도 선차적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날로 앙양되고 있다. 식민지 체계는 제국주의 련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되였으며 식민지 및 예속 국가의 광범한 인민들은 제국주의 후비군으로부터 사회주의 후비군으로 되였다.

그러나 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할 대신에 오히려 그 투쟁을 말살하자는 데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이 투쟁이 세계 대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요설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국제적 련대성을 보내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 앞에서 혁명의 절개를 지키지 못 하고 적들에게 굴종 투항 변절한 자들이다. 그들의 책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손실을 주고 있으며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조직화된 힘에 의하여 반드시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위대한 세계사적 사명을 더욱 철저히 자각하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로 성 권

현 시대는 계급 투쟁과 혁명적 사변들로 충만되여 있다. 세계 도처에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간, 식민주의자들과 예속 국가 인민들 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에 치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혁명들과 혁명적 사변들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 진행되든지 간에 그것은 혁명의 주체적 요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혁명에서 주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정확히 인식 리용하는 것은 혁명의 전략 전술을 작성함에 있어서, 혁명을 정확히 령도함에 있어서 또한 공산주의자로서의 애국적 및 국제주의적 원칙과 립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주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호상 관계

혁명이 일어 나는 근본 원인은 매개 나라의 낡은 생산 관계와 자라나는 새로운 생산력 간의 모순에 있다.

맑스는 사회 혁명의 기본 원인과 그 합법칙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종래 그 내부에서 발전하여 오던 현존하는 생산 관계 또는 이것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 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이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형식으로부터 그것의 질곡으로 전화한다. 그 때에 사회 혁명의 시대가 닥쳐 온다.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 1 권, 1963년 판, 383 페지)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포함한 모든 사회 혁명이 생산력 발전의 기본 단위로 되는 매개 나라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 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모든 사회적 운동의 필연성이 그러하듯이 혁명의 필연성도 그것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혁명은 우선 매개 나라의 주체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여야 한다. 이것이 1차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원인을 다만 주체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여서는 안 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들과의 호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발전된 이후에는 매개 나라는 더욱더 고립적 상태에서 존재하며 발전할 수 없게 되였다. 오늘에

있어서는 매개 자본주의 나라가 국제 자본의 련쇄 및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이러저러한 관계 밖에 놓여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매개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결코 다른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전혀 받음이 없이, 또 다른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전혀 영향을 줌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로부터 결국 매개 나라의 혁명은, 우선 그 나라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의 발현 형식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제적인 사회 경제 발전의 일정한 영향과 떨어져서 고찰될 수 없다.

혁명은 매개 나라의 주체적 요인의 산물인 동시에 국제적 요인의 산물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주체적 요인이다. 혁명이 일어 나는가 못 일어 나는가, 혁명 행정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주체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제적 요인은 임의의 나라의 혁명 발전에 부차적인 작용을 미친다. 국제적 혁명 정세, 국제 혁명의 지원, 국제적인 반혁명의 간섭 등에 의하여 혁명이 촉진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으며, 더 성과적으로 혹은 더 간고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국제적인 혁명 정세가 유리하면 국내에서 혁명 정세의 조성이 촉진될 수 있고 국내 혁명 력량이 투쟁에로 일떠섬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국제 혁명 정세도 유리하고 국내 혁명 력량의 준비도 잘 되여 있으면 혁명은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국내에서 혁명의 정세와 력량이 상당한 정도로 준비되였으나 국제적 환경이 극히 불리하여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실례도 력사는 보여 주었다. 반면에 력사는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좋은데 국내에서 혁명에 대한 준비가 되여 있지 않아서 혁명이 일어 나지 못한 실례들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험과 교훈은 혁명의 국제적 조건이 어느 정도 불리하다 하더라도, 국제 반혁명 세력이 국내 반혁명과의 련계 밑에 반혁명적 책동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혁명의 주체적 요인이 확고히 준비되여 있고 주체적 력량이 이 혁명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와 결심이 강하고 힘과 용기가 있는 조건 하에서는 혁명은 수행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조건 하에 있어서도,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 개국 제국주의 반혁명 집단이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 들었던 조건 하에 있어서도 혁명의 전취물을 확고하 고수하였으며, 또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주체적 력량의 승리이며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방침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아직,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원은 없고 국제 제국주의 반혁명 집단이 국내 반혁명 세력과 련합하여 달려 드는 조건 하에서 혁명을 수행하였고 그 전취물을 수호한 로씨야 로동 계급의 승리와 또한 세계 반동의 괴수 미국의 코밑에서 친미 독재 정권을 뒤집어 엎은 큐바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모두 혁명의 주체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개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은 우선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꾸리기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혁명의 주체적 요인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매개 나라의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책임적으로 혁명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혁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적, 정신적 원천들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혁명의 정세가 도래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 나 싸워서 성숙시켜야 하며, 혁명의 정세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대중을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정권을 쥔 나라의 로동 계급과 당은 또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추진시켜야 하며, 자주성 원칙에 립각하는 경제와 문화를 건설해야 하며, 그러한 혁명 무력을 건설해야 한다.

자력 갱생하는 실천 투쟁 속에서만 자신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심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만 자신의 힘을 더욱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해 더욱 용기를 내여 투쟁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우리 당은 대중을 항상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여 왔으며 자기의 모든 정책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혁명의 기본 문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자주적 립장, 경제 건설에서의 자립, 국제 관계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적 립장은 모두 이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천리마적 속도, 남반부의 혁명 력량과 반혁명에 대한 북반부 사회주의 력량의 강력한 영향, 국제적으로 되는 우리 나라의 확고한 위신은 자력 갱생에 립각한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국제적 요인을 옳게 타산할 줄 알아야 하며 국제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자력 갱생의 원칙이 필요하다.

벗들의 지지 성원을 주체적 력량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옳게 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의에 대한 배반으로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형제 나라들의 원조를 결코 대번에 소비함이 없이 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데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였다. 여기에는 그 원조를 당면한 인민 생활만을 해결하는 데 몽땅 바쳐 버리자던 반당 종파'군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이 수반되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벗들의 원조를 자체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리용하지 않고 탕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부터 자기 나라의 힘의 제반 원천을 믿지 않고 따라서 그 힘을 동원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다른 나라에 붙어 먹으려는 행세식 《공산주의자들》, 건달'군, 사기'군들을 항상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남의 혁명 성과가 커지면 자연히 자기 나라에 대한 지원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에만 의존하려는 립장, 앉아서 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립장은 혁명을 하려는 립장과는 인연이 없다. 더우기 남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계속 얻어나 먹자는 태도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배격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세상에서 건달과 사기'군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잘 살게 하자는 것을 목적하는 만큼 그 혁명 수행 과정도 결코 건달과 사기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에서, 내부 원천을 동원 리용함에 있어서나 국제적인 지원을 리용함에 있어서나 철저히 자력 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원조도 그것을 주는 사람들이 바라듯이 참으로 그 나라의 혁명 발전에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참으로 혁명가다운 립장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각국 혁명에 대하여 최대의 국제주의적 지지를 주어야 한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력 갱생의 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혁명 력량을 꾸리며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혁명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멀리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제 혁명에 최대한의 지지와 성원을 주어야 한다. 물론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그 자체가 벌써 커다란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에 머물 수 없다. 자체의 힘이 꾸려질 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제 혁명에 대하여 지지와 원조를 주어야 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먼저 주권을 전취한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국제 혁명에 대하여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먼저 혁명을 승리했다고 다른 나라 혁명에 대하여 강 건너 불보듯이 팔짱을 끼고 대하는 공산주의자를 상상할 수 없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과거 주권을 잡지 못한 시기에 있어서도, 오늘처럼 강대한 력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기에 있어서도 국제주의적 의리를 항상 간직하여 왔으며 실천에서 구현하여 왔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은 투쟁의 첫날부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는 구

호 하에 유일한 이 사회주의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하여 피를 흘려 싸웠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은 중국 형제들과 어깨를 겯고 중국 혁명과 중국 인민의 혁명적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지난날 쏘련 인민과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조선 인민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북반부에서의 혁명 수행에 직접적으로 원조를 주었다. 중국 인민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지원군으로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 성전에서 조선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투쟁하였다.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립장에 대한 고귀한 모범이 있다.

평화적 공존, 군비 철폐, 전쟁 반대의 구호 밑에 다른 나라 혁명들을 경원하거나, 앉아서 혁명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거나, 지어는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총을 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타기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국제주의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제국주의자들, 자본가, 지주들이 약소 국가 인민들과 피착취 인민 대중을 압박, 략탈, 멸시, 모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어떻게 증오를 금할 수 있으며, 어떻게 투쟁 의욕을 금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착취 받고 압박 받는 모든 인민들을 동정해야 하며, 그들의 적을 곧 자신들의 적으로 인정하고 투쟁에서 그들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립장을 떠나서 국제 혁명에 대하여,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국제주의에 대하여 아무리 요란스럽게 떠든다 하여도 그것은 허울 좋은 말공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세계 혁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피압박 근로 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며 그리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를 함께 향유할 각오로 전진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식 《자유》의 본질

조 오 룡

오늘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 지배층들은 《자유 세계》, 《자유 정부》, 《자유화》 등에 대해 더욱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자신을 《자유의 수호자》로 극력 묘사하고 있다.

케네디는 최근 서구라파 방문 연설들에서 《자유》란 문구를 수십 번이나 곱씹였으며 《자유의 수호》, 《자유의 위업》을 위해 단합할 것을 《동료》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미제가 대전 후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여 온 침략과 전쟁 도발 행동을 그 어떤 《자유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18 년간 미국은 지구 상 도처에서 자유를 위한 자기의 감시 사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떠벌리였으며 심지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자유화》, 《진화적 발전》을 추진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 놓았다.

자유의 교살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가 《자유》에 대해 새삼스럽게 웨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심각한 전면적 위기의 반영이며 그것은 위기에서 빠져 나려는 그들의 발악적이며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지들은 봉건적 예속을 반대하기 위하여 《자유》를 무기로 삼았다. 그러나 19 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이 《자유》를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무기로 전변시켰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부르죠아지들은 일체 진보적 사상과 객관적 진리를 등지고 인간 증오 사상을 부식하면서 사회의 전진을 가로 막는 정치적 반동의 길에 완전히 들어 섰다.

그리하여 한 때 부르죠아 혁명의 기치로 되였던 부르죠아적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회적 진보를 막으며, 진보적 사상을 말살하며, 객관적 진리를 은폐하는 반동의 기치로, 대외 침략의 무기로 되였다.

제국주의 반동들은 위험을 느끼면 느낄수록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은폐하기가 곤난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에 매달리며 《자유》에 대한 환상을 부식하려고 발광한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태가 바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미제는 갖은 수단을 다하여 《반공산주의》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의 주되는 내용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른바 미국식 《자유》에 대한

선전이다.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막으며 사회 발전의 객관적 진리를 《말살》하며 자본의 착취적 본질을 엄폐하며· 나아가서는 인민 대중을 자본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제도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미제는 미국식 《자유》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리용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식 《자유》의 선전에 광분하고 있는 리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 위력의 부단한 강화, 그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서 무능력해지고 당황해진 미제 반동 지배층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최고의 민주주의이며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중상 비방하며 훼손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으로부터 피압박 인민과 피압박 민족들을 떼여 내며 나아가서는 세계 력량 관계를 자기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그들이 처한 전면적인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 나려는 것이다.

미국 지배층들과 반동 사상가들은 온갖 선전 수단을 다 발동하여 미국식 《자유》를 《개성의 자유》, 《진정한 자유》의 표본인듯이 날조하면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 대중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곡 중상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들은 《철의 장막》이니, 《공산 독재》니 하는 비방과 중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위력과 그 의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 반동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그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리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 진보적 사상의 장성 앞에서 그야말로 눈이 뒤집힐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다. 반동 세력의 이러한 공포는 중세기에 기독교 승려들이 자연 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느낀 그 공포보다 훨씬 더 크다.

이와 같이 미국식 《자유》는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 위력과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 앞에서 죽음을 예감하는 자들이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며 진보를 막기 위한 반동적 무기의 하나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유의 수호》라는 기만적 구호 밑에 인민들에게 방대한 군사비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써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산주의 위협》, 《공산주의 침투》라는 구실을 날조하여 《자유의 위업》을 표방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그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행동을 《자유》라는 구호 밑에서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미국식 자유》는 미제의 하나의 정치적 기만 수단으로, 대외 침략을 위한 무기로 복무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자유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미국식 《자유》를 그 나라들에 부식시킴으로써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넋을 거세하려 하고 있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 지배층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방대한 선전 기계들을 리용하고 있으며 그에 막대한 딸라를 퍼붓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파견되고 있는 《평화군》, 미 선교사, 《외교관》 등이 바로 그의 초병으로 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심지어 미국식 《자유》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부식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평화적》으로 녹여 내며 자본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제의 《자유화》 정책은 그들의 《기본 전략》의 하나로, 《평화 전략》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미국식 《자유》를 침투시킴으로써 부르죠아지의 추잡한 생활 양식, 그들의 오물로써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썩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사회주의 길에서 물러 서게 하며 혁명의 위업을 포기케 할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썩게 하고 《평화적》으로 녹여 내기 위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공세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대두와 관련하여, 그들을 길잡이로 하여 최근 광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자유화》 공세에 적극 발을 맞추면서 미국식 《자유 문화》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 수입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식 《자유》가 들어 가는 곳에서는 례외 없이 부르죠아적 방종과 타락, 혁명에 대한 권태증이 전염병균과도 같이 성하며 혁명적 경각성과 의식이 마비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협조》하며 좋게 지내야 한다는 구실 밑에 미국식 《자유》를 받아 들임으로써 반혁명에 길을 열어 주며 부르죠아지의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 가는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음으로 그것은 국내에서의 미제의 반인민적, 반동적인 파쑈화 정책을 미화하며 인민들에 대한 진보적 사상의 영향을 막으려는 것이다. 미국 지배층들과 반동적 사상가들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진리를 가장 혐오하며, 저주하며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것을 말살하려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보적 사상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다. 광범한 근로 대중이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본질을 깨달으며 진보적 사상으로 무장될 때 자본주의 제도는 매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근로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혼미케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 라지오, 텔레비죤 등이 자본주의 제도를 미화하며 사람들의 두뇌를 혼미케 하는 각종 광고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 관계, 인간의 관계는 딸라의 관계로 되고 있다. 인간 증오 사상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죠아 반동들은 근로 대중을 사색의 기능을 잃은 단순한 동물로, 부르죠아지의 기계로 되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식 《자유》는 인민 대중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며 객관적 진리를 은폐하며 진보적 력량을 탄압하며 대외 팽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배층들과 부르죠아 반동 사상가들은 미국식 《자유》를 분장하려고 애쓰면서 그것을 《만민을 위한 자유》, 《미국에서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떠들고 있다.

본래 자유란 사회적 현상이며 사회적 자유이다. 계급 사회에서는 자유가 계급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독점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자유》란 그것이 딸라와 결부되여 있다.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압박과 착취, 실업과 빈궁을 강요 당하고 있는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로동 시장에서 《자유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노예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우기 실업자 대중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로동자들 간의 《경쟁》은 그들로 하여금 로동 계약 조건을 《자유롭게》 심의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에서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로동력을 사며,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치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란 헐값으로 자기의 로동력을 파는 임금 노예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 지배층들이 《자유》에 대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 나고 있는 사태들은 미국식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여 준다.

오늘 미국에는 근 600만의 완전 실업자와 기타 수 많은 반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1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사는 안토니도 모레노는 《항시적인 직업과 자기의 로동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절실하게 념원하면서 《1 년에 한 달 밖에 일하지 못 하는》 미국 사회 제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련방 수사국은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증언을 날조하며 다소라도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운명을 면치 못 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악명 높은 《맥카란법》과 당적에 관한 《스미스법》을 조작하여 미국 공산당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제멋대로 박해 투옥하고 있다.

케네디가 《만민의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떠들 때 감옥의 철창 속에서는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인민을 탄압하는 교형리들은 그 《공로》로 하여 고관대직에 등용되고 있다.

로동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정당한 진출은 파쑈적 악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있다.

케네디는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는 《가장 공고한 조직체》라고 떠벌렸다. 그러나 그렇게도 《문명》하고 그렇게도 《자유로운》 미국에서 매년 로동 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의 수는 10만을 헤아리고 있다. 1950～1960 년간에 미국에서 일어 난 범죄 건수는 2 배로 증가하였으며 1960년 한 해에만도 그들이 축소해서 발표한 수'자에 의하면 평균 58 분만에 1 건의 살인 사건, 매 39 초만에 1 건의 절도 사건, 매 6 분만에 1 건의 강도 사건, 매 34 분만에 1 건의 강간 사건, 매 4 분만에 1 건의 몸서리치는 테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식 《자유》에 기초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악독한 후과는 특히 청소년들을 부패와 타락의 길로 몰아 넣고 있으며 끊임 없이 범죄 사건을 빚어 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은 적수공권으로 값싼 생명 밖에 가지고 있지 못 한 보통 미국 인민인 것이다. 오늘 미국의 《범죄는 미국의 수출품으로 되고 있다.》

미국에는 《만민의 평등》과 《자유》를 선포한 《헌법》을 비롯하여 수다한 법규와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노예 소유자인 미국의 억만 장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력사의 특히 비극적인 페지를 펼쳐 놓았다.》(레닌 전집 제 28 권, 56 페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수다한 법규와 조문들은 한갓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형식 상으로는 이미 100 년 전에 페지되였지만 사실상 오늘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며 흑인들을 동물처럼 대하는 것이 오늘 미국 《문명》이 빚어 내고 있는 사회 현실이다.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 미국의 중요 사상이다.

금년 5월에 들어 와서 버밍감을 비롯하여 보스톤, 잭슨, 그린스보로, 내쉬빌, 필라델피야와 기타 미국 각지에서는 생존과 인권을 위한 흑인들의 정의의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미국 인종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전례 없는 테로와 학살로써 대답하였다. 케네디 행정부의 지시 밑에 흑인 폭동 진압에 동원된 경찰 당국은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 많은 흑인들에게 부상을 입히였으며 미 전국 유색 인종 발전 촉진 협회 미시시피주 서기장 에버스와 같은 저명한 흑인 활동가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미국 통치배들은 흑인 탄압에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케이단》과 같은 파쑈 단체들을 또한 리용하고 있다.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인권을 전취하기 위한 흑인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자 미 제국주의의 두목인 케네디는 《민권》에 대한 《특별 교서》를 발표하여 흑인들에게 《동등권》을 부여할 《평화 혁명》을 하겠다고 헛나발을 불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가 부르짖는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종 차별의 청산》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정당한 투쟁에 궐기한 흑인들의 진출을 무마해 보려는 교활한 책동에 불과하다.

이리하여 미국식 《자유》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착취자들의 허위적인 《자유》이며 잔인 무도한 강도배들의 야수적인 《자유》이다.

* *

계급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착취자들의 《자유》는 근로자들의 자유를 부인하며 근로자들의 자유는 착취자들의 자유를 부인한다. 근로 대중의 진정한 자유는 착취자들의 《자유》를 청산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써는 아무런 자유도, 평등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세계 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며 타국 령토를 군사적으로 강점하며 침략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을 략탈하며 학살하는 미제의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외면하고 그들의 침략적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며 그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길로만 나간다면 그것은 인민들을 속이는 것으로 되며 적들을 더욱더 오만하게 만들고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에로의 길을 막는 것으로 된다.

미국식 《자유》, 《자유 문화》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것을 수입함으로써 미제의 《자유화》 정책에 발을 맞추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의식,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는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추악한 책동은 혁명의 배신적 행위로서 철저히 규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작가의 개성 문제

연 장 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개화 발전에서 작가의 개성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원칙들을 자기의 생활 자료에 기초하여 매번 독특하게 실현하는 작가의 개성적 독자성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은 부단히 새로운 것으로써 풍부화된다. 시대의 본질을 심각하게 보여 주는 작가의 얼굴(개성)이 뚜렷한 작품일수록 독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이러한 작품들에 의해서 우리의 문학 예술은 더욱 찬란히 꽃피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있어서 작가의 개성은 공산주의적 당성과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당성은 작가들의 개성의 참다운 발현을 담보하며 과거의 그 어떤 예술도 가져 보지 못한,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능케 한다. 레닌은 자기의 론문 《당 조직과 당 문학》에서 문학 예술의 프로레타리아적 당성과 작가의 개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물론 문학 사업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평균화라든가, 수평화라든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라든가 하는 일은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인적 기호의 자유, 사색과 환상, 형식과 내용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툴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당 사업 중 문학 부문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당 사업의 다른 부문들과 덮어 놓고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것을 실증할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은 부르죠아지와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리해할 수 없는 기이한 명제, 즉 문학 사업은 반드시 사회 민주당 사업의 일 구성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결코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레닌 전집 제 10 권 1 분책, 49~50 페지)

적대적 계급 사회의 조건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그 사회 제도와의 모순 속에 처해 있다. 통치 계급들은 자기들의 반인민적인 계급적 목적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작가들의 개성의 참다운 발현을 극도로 억압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창작의 자유의 마지막 흔적까지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는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생활의 진리를 지향하는 작가들의 창작을 가혹한 검열 탄압과 검거, 투옥, 학살 등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였다.

진정한 창작의 자유, 개성의 자유는 적대적 계급 사회 조건의 청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해방 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 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당의 옳바른 령도 하에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남김 없이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의 개성의 자유는 사회의 계급적 모순의 청산에 의해서만 조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작가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당성 원칙에 의해서 보장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검열 탄압과 검거 투옥에 의해서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매수와 급료, 출세주의, 공명주의 더 나아가서는 부르죠아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 등 온갖 정신적 해독물에 의해서도 작가들을 구속하고 노예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의 창작 활동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고상한 목적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절대적 자유》란 그 어느 때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 예술인들이 즐겨 말하는 작가의 개성의 《절대적 자유》란 《돈 주머니와 매수와 급료에 대한 가장된(또는 위선적으로 과장되여 있는) 예속에 불과한 것》(동상서 53 페지)이며 자기들의 반인민적 계급성을 엄폐하며 직접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 문학 예술의 진보적 사상을 반대하기 위한 기만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문학 예술의 《초계급성》, 《무당파성》을 떠벌리는 부르죠아 미학자들의 파산 당한 《리론》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문학 예술의 공산주의적 당성과 당의 령도를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정적 간섭》이라고 비방 중상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성의 자유》란 부르죠아적인 창작의 《절대적 자유》의 재판에 불과하며 부르죠아 무정부주의적 《자유》에 불과하다.

문학 예술의 공산주의적 당성과 그에 대한 당의 령도는 작가의 선진적 사상성을 규정해 주며 문학 예술의 현대성과 고상한 사상 예술성을 담보해 주는 확고한 원칙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이 공산주의적 당성 원칙에 의거하고 있음으로 하여 유력한 힘을 가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을 거세하는 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성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의 개성의 자유에 대하여 말할 때 량자는 호상 분리할 수 없게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공산주의적 당성의 철저한 관철은 작가들을 온갖 정신적 낡은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또한 부르죠아 반동 사상의 새로운 침습으로부터 작가들을 철저히 보호해 줌으로써 진정한 창작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아무리 사회적 조건이 유리하게 전변되였다고 하더라도 부르죠아 사상의 외부로부터의 침습과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창작과 개성의 참된 자유가 보장되지 못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첫날부터 문학 예

술의 레닌적 당성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그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켰다. 당은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들 자신이 문화의 창조자로 된 새 사회 조건 하에서 작가들의 창작 생활에 심중한 배려를 돌리는 한편 작가들의 정치적 장성과 맑스-레닌주의 교양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족 문화 유산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계승 발전시키며 그 기초 우에서 인류의 진보적 문화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섭취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당은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현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그 당성의 기치를 지침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심중한 배려를 돌렸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현명한 제반 조치와 지도는 해방 후 우리 문학 예술의 급속한 개화 발전을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당의 정확한 지도 하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재능은 활짝 꽃피였으며 그들은 자기의 개성적인 독창적 목소리로 시대의 본질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 업적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긍정적 주인공들에 대하여 마음껏 노래하고 이야기하여 왔다. 불과 18 년 전만 하여도 일제의 악독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혹심하게 유린 당하였던 민족 문화 예술이 오늘 세계 무대에서 《황금의 예술》로서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정당성에 기인하며 그 승리를 실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있어서 작가의 개성의 발전은 결코 개성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본질을 더욱 심오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며 생활을 심오히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에 대한 침투, 생활 체험의 정도는 작가의 세계관이 그러하듯이 그의 창작의 개성적 독자성에 여실히 반영된다.

부르죠아 미학자들은 문학 예술을 현실 세계와 대립되는 《환상의 세계》로 인정하면서 한사코 현실을 외면하며 이로부터 그들은 작가의 개성에 대해서도 생활 현실과 련관이 없는 《순수 형식》의 산물 혹은 작가의 자의적인 《주관》의 산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견해의 본질은 명백하다. 자본주의의 파멸상을 엄폐하고 그것을 멸망의 운명에서 건져 보려고 발광하는 자들이 어떻게 날마다, 자국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적인 전진을 확증하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퇴페적인 부르죠아 미학 사조를 그대로 따라 배우면서 《개성의 자유》에 대한 낡아 빠진 구호를 《새롭게》 고창하며 문학 예술을 현실로부터, 절박한 시대적 과업의 해결로부터 떼내려 하고 있다.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예술 지상주의 간판을 받쳐 들고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며 내용에 대한 형식의 우위와 내용을 부인한 《형식의 발전》을 떠들어 대면서 그들은 모더니즘, 추상파 등 형형색색의 《예술》을 《고안》하고 거기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찾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이미 《낡았다》고 하며, 예술은 현실과 무관계한 예술가 자신의 《환상의 현실화》로 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현대적 스찔》에서 찾아 볼 수 있는바 수정주의자들은 현대를 《속도의 시대》, 《기계의 시대》로 운운하면서 이에 《적응한》 몇 가지 추상적 표징들을 《고안》하여 그것이 가장 《새로운》 작가들의 《혁신적 스찔》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부르죠아 형식주의 예술가들과 그들에게 추종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작가의 참다운 개성의 발현을 저애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작가의 개성 자체의 파멸을 초래한다. 오늘 그들의 문학 예술이 실증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이미 예술이기를 그만 둔지 오래며 남은 것은 오직 파산당한 《개성》의 유물인 《현대적 스찔》뿐이다.

작가의 개성의 자유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다. 작가의 개성은 생활의 깊은 본질을 발견하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기 위한 심오한 창작 과정, 진지한 작가적 노력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작가가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가 생활 자료를 풍부히 축적하며 생활 속에서 새것과 낡은 것의 투쟁과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을 자기 눈으로 발견하며 시대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기의 주인공과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에 적응한 새로운 예술적 형식과 언어를 탐구해 내는 창조적 노력을 떠나서 그 어떠한 작가의 개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오랜 작가들과 해방 후 우리 당의 품에서 새로 자라 난 허다한 작가들의 실례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작가들에게서 작품의 선진적인 내용을 자기의 독특한 생활 자료와 작가적 안목과 미학적 취미와 형상화의 제반 독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높은 예술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창작적 성과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한 높은 공산주의적 사상성을 사랑하는 동시에 또한 그 예술적 독자성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당은 문학 예술과 인민 생활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며 작가들이 언제나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가도록 일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깊은 배려를 돌렸다. 당은 작가들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감으로써 자신을 더욱 튼튼히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생활 속에서 의의 있는 예술적 주제들을 찾아 내고 그것을 생동하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할 것을 일관하게 가르쳐 왔다. 생활과 시대의 들끓는 한 복판에 깊이 들어 가서 그 속에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주인공을 발견하고 형상화하는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창작 과정은 해방 후 우리 문학 예술의 높은 개화 발전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작가들의 개성이 과거 그 어느 때에도 볼 수 없던 풍부한 발전을 이룩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천리마 시대의 기념비적 작품인

《붉은 선동원》을 비롯하여 《두만강》, 《밀림아 이야기하라》, 《석개울의 새봄》, 《시련 속에서》, 《해바라기》, 《밝은 태양 아래》, 《분계선 마을에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적 화랑이 창조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인류 예술 발전의 질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사상적으로 가장 심오한 동시에 그 심각한 사상성은 예술성과 완전히 통일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예술의 훌륭한 성과들을 자체 속에 계승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예술적 형식들을 부단히 개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오한 예술적 창조 과정은 생활의 본질에 대한 높은 전형화 과정과 결부되고 있는바 작가의 개성의 발전도 이러한 원칙적 요구와 분리되지 않는다.

만일 작가가 개성을 확립한다고 하여 그 어떠한 《독창적 형식》만을 《창안》하기에 급급하거나 생활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그 어떤 《진기한 사실》이나 《독특한 주제》만을 찾아 내기에 급급한다면 불피코 예술적 파탄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에게 요구되는 창작적 개성의 발전도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작가적 개성을 살림이 없이 생활의 뒤끄리만 따른다면 이것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요구와는 인연이 없다. 작가의 개성이 생활 속에서 형성되며 생활의 변화와 함께 변한다고 하여 작가는 다만 생활의 수동적 감수자이여서는 안 된다. 생활은 예술의 모태인바 사실주의 예술의 확고 부동한 원칙은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이다. 그러나 이 반영은 작가의 미학적 리상에 비추어 묘사되며 생활에 적극 반작용하는 것이다. 작가들은 응당 자기의 세계관, 미학적 취미, 미학적 리상을 부단히 제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개성을 더욱 완성하고 생활 속에 더욱 깊이 들어 가야만 한다.

《개성의 자유》에 대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이른바 《전 인류적 문학 예술》의 《구호》와 결부되여 있다. 그들은 이것을 《전 인류적 인도주의》로도 표현하면서 《개성의 완전성》은 《인도주의》의 《최고 리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학 예술에 있어서 《전 인류성》, 《전 인류적 인도주의》에 대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벌써 오래 전부터 부르죠아 문학 예술인들이 처음에는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후에는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프로레타리아를 반대하여 입버릇처럼 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그것이 그 어떤 《초계급적》이며 《초력사적》인 《절대적인 인간》의 《자유》와 《인도주의》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데 있다. 그들은 이미 《사회 관계의 총체》(맑스)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시대와 력사를 초월한 그 어떤 절대적인 《인간 개성》만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현실적인 투쟁도, 세계 혁명의 과업도 안중에 없으며 다만 계급을 초월한 《인간 일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인도주의는 직선적이다. 그것은 사근사근하고 달짝지근한 말로써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의 목적은 전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를 자본가들의 파렴치하고 피비린 발광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매매되는 상품이 아니며 소시민들의 황금과 사치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줌에 있다.》고 한 고리끼의 말은 오늘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타당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전인류적 문학 예술》의 허위성과 반동성은 그들이 이 구호 하에서 지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통일과 개인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인 것, 집단주의의 우위성을 부인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전 인류적 인도주의》를 위하여 작가들이 이제는 《대중》의 범주로부터 《인간 개성의 세계로 침투》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으며 또한 《집단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이 과연 《전 인류적 문학》, 《개성의 완전성》의 구호 하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부르죠아 개인주의에 립각한 부르죠아 인도주의와 적대적인 것으로서 자본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전 세계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위대한 리상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의 통일에 기초하면서 사회와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적인 복무의 정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에서는 사회와 집단의 리익이 다름 아닌 사회 전체 성원의 리익과 행복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구호에 잘 표현되고 있다. 《전 인류적 문학 예술》과 《개성의 완전성》이란 결국 부르죠아 개인주의의 되풀이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것일 수 없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응당 온갖 착취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위대한 투쟁의 일환이 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강유력한 수단이 되여야 한다. 현 시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세계 도처에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 민족적 독립을 란폭하게 유린하며 인간 도살의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를 괴수로 한 국제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응당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격렬한 투쟁을 반영하는 현대의 영웅적 주인공을 형상하여야 하며 인민들을 제국주의와의 판가리 싸움에 항상 굳건히 준비시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로 되여야 한다.

문학 예술을 통한 공산주의 교양은 결코 그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구호의 라렬로는 실현될 수 없다. 문학 예술의 인식 교양적 기능은 예술의 생동한 전형적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서에까지 작용하는 사상 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작가의 개성의 다양한 발전과 심화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고 그가 자기의 심각하고도 독창적인 목소리로 원쑤들을 분노와 저주로써 규탄하며 생활에서 새것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힘 있게 이야기할 때에만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욱 풍부한 발전을 가져 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우리 앞에는 문학 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 전투성과 혁명성을 가일층 제고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전투적인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작가들의 개성을 일층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작가들은 우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당 정책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인민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예술적 주제와 시대적 성격을 발견하고 자기의 얼굴로써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것을 깊이 있게 해명하고 형상화할 수 있다. 시대의 첨예한 문제를 깊이 있게 반영할수록 주인공의 성격이 뚜렷해지는 것처럼 작가의 개성 또한 생활의 본질적 문제를 얼마나 깊고 폭 넓게 대하는가에 따라 선명하게 나타날 것은 응당한 리치이다.

현 시기 작가들의 창작적 개성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시대의 요구와 생활의 발전에 적응한 독창적인 예술적 형식을 더욱 풍부히 개척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활은 예술적 형식의 부단한 발전을 요구한다. 작가의 개성은 생활 자료의 선택과 평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성과 전형화의 수법, 예술적 언어 사용 등의 독자성에 또한 의존한다. 예술적 형식을 개척하는 과정은 생활의 본질을 새로이 발견하고 일반화하며 주인공의 성격을 새로이 포착하고 천명하는 심오한 예술적 탐구와 결부된다. 동시에 그것은 민족 문화 예술 전통의 우수한 경험을 혁신적으로 계승하며 새로운 민족 문화 예술 형식을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족 문화의 유구한 전통은 탁월한 민족 예술가들의 창작적 개성들로 빛나고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풍부히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문학 예술의 가일층의 개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끝으로 우리 문학 예술의 유일한 창작 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은 민족 문학 예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직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의 기치에 충실하며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의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때에만이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부르죠아 문학 예술인들과 특히는 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부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그 어떤 작가의 개성 일반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가의 다양한 개성에 절실한 관심을 가진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의연히 《현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이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창작적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 들고 그의 당성, 계급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우리 문학 예술로 하여금 혁명의 무기로, 당과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더욱더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 재건》론의 정체

조 경 일

남조선 위정자들은 군사 구데타 직후부터 《경제 재건》과 함께 《도의 재건》을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사회의 혼란과 부패, 타락의 원인을 은페하기 위하여 《퇴폐한 국민 도의》를 다시 바로 잡는다는 조항을 군사 파쑈 정권의 《혁명 공약》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군사 파쑈 도당들은 소위 《구악 일소》니, 《청신한 기풍의 진작》이니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온갖 《혁명적인》 언사로 분식하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의 설교에 의하면 남조선 사회를 휩쓸고 있는 온갖 사회악은 인민들의 《도의의 타락》, 《민족성의 타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이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 제도를 변혁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타락된 도의를 재건》하고 《민족성을 개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 재건》, 《민족성 개조》의 방도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대체로 《인격을 도야》하며 《인간을 성화(聖化)》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도의 재건》론은 부르죠아 륜리적 관념론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 리론에 의하면 사회 관계에서 변혁할 것은 사회 제도가 아니라 《인격》, 《정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제도와 착취는 건드리지 말고 《정신적 자아 완성》, 《도덕적 변생》에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남조선 위정자들의 《도의 재건》론은 민족주의적 외피를 쓴 륜리적 관념론의 변종에 불과하다.

물론 남조선에서의 《도의 재건》은 군사 《정권》 시기에 와서 비로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리 승만, 장 면 통치 시기에도 소란스럽게 떠들어 왔다.

그러나 현 군사 《정권》 시기와 같이 《도의 재건》을 고창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것은 《군사 정변》 후 군사 파쑈 도당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는 여지 없이 폭로되였으며 군사 《정권》의 정치, 경제적 위기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 기세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증대된 것과 관련된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속출하는 악페와 사회적 혼란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저들의 반인민적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타락》, 《민족성의 결함》

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도의를 재건》하는 것이 민족이 갱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인격 도야》 사업이 시급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과 패덕, 패륜, 타락된 사회 풍조의 심각성을, 그를 빚어 낸 남조선 현실, 물질적 환경과의 련계 속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회적 의식의 하나의 형태에 불과한 륜리, 도덕을 그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전환시킨 다음 사회적 물질적 존재에 의하여 발생된 도덕을 남조선 사회의 악페를 빚어 내는 최대의 요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남조선 사회의 모든 악페가 인민들의 도덕적 타락의 산물이라는 환상을 조성하면서 《타락된 도의를 재건》하는 것이 사회 모순 해결의 근본 문제인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의 타락》이 결코 남조선 사회가 부패하게 된 근원으로 될 수 없다. 남조선에서 부식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부르죠아 패덕주의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파급되고 있는 악페와 함께 전적으로 해방 후 18 년간에 걸치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 낸 산물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도덕은 상부 구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의 반영이다.

남조선에서의 《도의 타락》은 계급적 적대, 사'적 소유, 특히 악독한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사회 물질적 제 모순의 구체적 표현이다. 말하자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는 남조선의 사회적 조건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패덕적인 륜리 규범의 지배는 불가피한 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도의 타락》을 가증시키고 있다. 경제의 파국과 이에 따르는 인민 생활의 악화, 퇴페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 민족 문화의 말살 등 이 모든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도덕 생활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이끌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와 남조선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모순적인 사회 경제적 근원을 청산하지 않는 한 사회 악페는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도의 재건》이란 구호 하에 남조선 위정자들은 남조선 사회를 휩쓸고 있는 사회악의 진정한 화근을 은페하려 하고 있으며 남조선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 개량주의적 환상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도의 재건》을 사회 문제 해결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요구로 제기하는 것은 결국 온갖 사회악을 빚어 내는 남조선 현실을 긍정적으로 리해하라고 인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부패한 현 사회 제도를 다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요구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위정자들은 《도의 재건》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국가 재건 국민 운동》, 학교와 교회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 위정자들은 《군사 정변》 직후부터 미제의 략탈 정책과 저들의 매국 배족 정책을 합리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기 위하여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국민 총력 운동》의 재판인 《재건 국민 운동》이란 것을 조작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파쑈적 조직을 통하여 저들의 사회 정치적 지반을 꾸리는 한편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민족 개량주의적 환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은 공장, 농촌 지대를 자주 시찰하면서 담화, 연설을 통하여 《타락된 민족성》을 개조하는 길은 《자아 혁신》, 《인간 개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남조선에서의 4천 년래의 민생고가 마치 남조선 인민들의 타태에 있는 듯이 날조하면서 《아마 우리 민족 만큼 게으르며 놀고 먹자는 관념이 많은 민족은 드물 것이》니 《근면이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론의는 왜정 때 친일파,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조선 민족은 《렬등 민족》이므로 일제에게 굴종해야 한다고 지껄이던 낡아 빠진 설교의 재판이다.

력사적 경험은 민족 개량주의가 례외 없이 외래 침략 세력의 어용 사상으로, 그의 주구로 전락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력사적 진리를 확증해 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가 《민족 개조론》을 주장한 리 광수의 추악한 행동이다. 그는 《민족 개조론》을 통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바로 이러한 리 광수의 《민족 개조론》을 남조선의 어떤 자들은 재긍정해야 할 필연성을 《론증》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리 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일제에게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미제에게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남조선 위정자들은 《국가 재건 국민 운동》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민족 개량주의적 환상을 주입시키려고 그처럼 발광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속에서의 《도의 재건》을 위한 민족 개량주의 교양은 《반공 도의 교육》에서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대학에 종전에 없었던 《민주주의와 반공에 관한 특별 강좌》를 설치하였으며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공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는 한편 종전의 《도의 교과서》와 《실과 교과서》를 《도의 재건》의 체계에 맞게 개편하였다.

례하면 중학교 《도의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이 못 사는 원인을 《자주 자립 정신이 없고 의탁심과 게으른 탓》이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설교는 오늘 남조선 인민들을 비참한 처지에 몰아 넣은 장본인을 감싸 주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남조선 인민에게 전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현재의 환경도 고맙게 생각하며 사회나 남을 원망하지 않는 노예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것임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지식인들이 《도의 재건》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고 웨치면서 저들의 추악한 목적에 리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사회학자, 력사학자, 철학가들에게 《도의 재건의 량서》를 써 내라고 요구하며 작가, 예술인들에게도 《도의 재건》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써 내며 공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도의 재건》의 설교자들은 《인격을 도야》하며 《인간을 성화(聖化)》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이 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 위정자들이 《도의 재건》을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도의 재건》이란 구호를 들고 제아무리 날뛴다 해도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 기만할 수 없으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킬 수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남조선에 속출되고 있는 사회악이 남녘 사람들의 《도의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다.

이러한 인민들의 각성을 반영하여 남조선 잡지 《신태양》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은 《이 나라 도덕에 악마적 영향을 준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군사 《정권》의 《도의 재건》 책동에 대하여 랭소하고 있으며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사회학자는 《도의 재건》을 둘러 싸고 벌어지는 소동은 《사회악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며 사회악을 감추고저 하는 수단》이라고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결국 《도의 재건》 책동은 인민들의 조소와 분격 속에 군사 파쑈 도당들의 추악한 무리들과 함께 쓰레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답 학습

《평화군》은 침략군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중간지대》에 침투하며 그를 장악하기 위하여 침략의 길잡이로서의 《평화군》을 이 지역 나라들에 계속 증파하고 있다.

《평화군》은 1961년 3월에 발족한 이래 오늘까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40 여 개 나라들에 파견되여 있다.

작년 가을에 미 국회는 1963년 말까지 그 인원을 1만 명으로 증가하며 그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출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최근 《미개발》 국가들에 대한 《평화군》의 파견을 위한 미제의 책동은 더욱 적극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6월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케네디가 《오늘 졸업하는 당신들의 대다수가 해외에서 평화군으로서…봉사함으로써》 미제의 대외 침략에 복무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떠벌린 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평화군》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파견되여 그 지역 나라들에 숭미 사상을 부식하며 미국의 비밀 기관들과의 련계 하에 정보를 수집하며 진보적 력량에 대한 감시, 파괴, 암해 활동 등을 감행함으로써 미제의 정치 경제적 침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철두철미 침략의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그들의 이와 같은 침략적 기도를 엄폐하려고 하면서 《평화군》의 사명이 《미개발》 국가들의 후진성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방조》하여 《신변강을 개척》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루 속히 《자유와 독립에 유리한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발전의 위대한 공동 사업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떠벌리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만적 목적 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길잡이들을 의사, 교원, 기술자 등으로 변장시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지역에 침투시키고 있다.

《평화군》은 직접 미 국무성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직접적인 조종자는 미 중앙 정보국이다. 《평화군》이 미제의 대외 침략의 선발대이며 변장한 간첩, 첩보대들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대원의 선발이 미 련방 조사국과의 협조 하에 진행되며 엄격한 시험은 물론 구체적인 신원 조사와 6 명의 《보증인》이 요구되며 《평화군》의 두목들이 미 중앙 정보국의 이름 있는 오랜 간첩이며 기타 지도적 인물들도 례외 없이 국제 협조처와 중앙 정보국의 비밀 기관들과 이러저러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만으로써도 충분히 설명된다. 미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평화군은 반드시 충성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며 또

한 공산주의 철학, 전략 전술, 위협에 대처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보는 바와 같이 《평화군》은 케네디의 음흉하고 교활한 《량면 전술》의 산물이며 미제의 새 형태의 식민주의 수법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3 분의 2의 인구와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중간 지대》는 사실 상 제국주의자들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후방을 이루고 있다. 이 광대한 지역이 제국주의의 영향에서 완전히 떨어져 제국주의의 후방으로부터 사회주의 후방으로 전변되고 그들이 자주적 길로 나갈 때 그것이 제국주의의 종국적인 멸망을 촉진하리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가 《이 광대한 중간 지대를 누가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는 량대 진영 간의 투쟁에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 광대한 지역을 자기들의 예속 하에 넣기 위해 발악하면서 저들의 각종 침략 기구들을 조작하였으며 그것을 발동하여 남부 월남, 라오스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벌려 놓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각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변천된 정세 하에서 미제는 군사적 방법 하나만으로써는 이 과정을 막을 수 없으며 광대한 《중간 지대》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바로 여기로부터 미제는 군사적 방법과 함께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정치적 음모, 기만과 회유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기만의 하나인 《평화군》에 대해서 미국 지배층들은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평화군처럼 미국의 리상주의 정신과 우리의 희망을 십분 효과적으로 세계의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것은 없다고 떠들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미제 침략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리상주의》란 《자유 세계의 뉴대》를 말하는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미제에 대한 영원한 예속의 강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오늘의 《평화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제는 벌써 19 세기 초부터 《구제주》의 탈을 쓰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나라 인민들을 《방조》한다는 미명 하에 《평화군》과 류사한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들이 《선교사》, 《교육자》, 《박애주의자》로 가장하여 각종 간첩 행동을 감행하면서 미제의 대외 침략의 길을 개척하는 데 종사하였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와 같이 《평화군》은 변천된 오늘의 실정에 적응하게 바꾸어 놓은 19 세기의 《구제주》의 변종에 불과하며 그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군》은 우선 숭미 사상을 전파하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킴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미제 독점 자본이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지반을 닦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평화군》의 두목인 슈리버가 《평화군은 미국의 대외 정책의 군중적 기초를 창조하여 줄 것》이라느니 《원조는 원조지만 그러나 미국식 생활 양식에 관한 선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음탕하고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문화를 부식함으로써 후진 국가 인민들에게 미제의 예속에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주입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좌절시키며 진보적 력량과 진보적 사상의 장성을 막으며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서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를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로 되는 것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비자본주의적 발전, 그들의 자주적인 발전이다. 그러므로 미제는 해당 국가의 진보적 력량을 탄압하고 미제에 맹종하는 괴뢰들을 내세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실현에서 《평화군》은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자주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나라들에서 각종 파괴, 전복 활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악한 행동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나라 인민들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군》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건전한 발전을 막기 위하여 반동들을 규합하여 《반공산주의》 소동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제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평화군》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미 중앙 정보국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정보를 내탐하는 첩보 활동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평화군》의 두목들이 미 중앙 정보국의 오랜 간첩들이며 《평화군》 대원들이 출발에 앞서 주밀한 첩보 활동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첩보 활동이 경각성 있는 주민들에 의하여 빈번히 발각되여 신랄히 규탄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동시에 《평화군》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사복을 입은 침략 무력의 《특수 분견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데일리 뉴스》지는 펜타곤이 이 조직을 미군의 《특수 부대》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전투도 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소위 《평화군의 지침》이라는 데 의하면 《평화군》 대원들은 수림 속에서의 유격전을 비롯한 필요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매개 성원들은 단독으로 밀림 속에서 1 주야 있어야 하며 한 개 소조는 3 일 내지 1 주일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평화군》은 평시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식 생활 양식》과 숭미 사상을 부식하며 전시에는 무장을 하고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과 혁명 투쟁을 탄압하는 미군 전투대로 활동하는 특수 부대이다. 미국 군사 계층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군사 행동을 위하여 《평화군》을 심지어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로 구성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 미제는 《평화군》의 정체가 세계 도처에서 여지 없이 드러나게 되자 더욱 음흉한 방법으로 아세아에는 아세아 출신 미국인을, 아프리카에는 흑인을, 라틴 아메리카에는 미국 천주교 신도들을 《평화군》의 《고문》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된 침략적 정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심지어 미군 전투 부대를 《특수 평화군》으로 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실천에까지 옮기고 있다. 일례로 타이를 강점하고 있는 미군들이 주민 지역에서 《의료대》, 《교원》, 《문예》, 《체육》 등의 《평화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우기 미제는 국제 기구를 통해 《평화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는데 1962년 3월에 열렸던 열대 아프리카 교육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금년에 아프리카에 파견될 1,000 명의 《평화군》 교원을 훈련시킬 것을 제의한 바 있는가 하면 《국제 평화군》을 조작할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동남 아세아에 파견할 《평화군》을 5,000 명 훈련시키고 있다 하며 최근 서부 독일 역시 미제의 《평화군》에 류사한 《개발 봉사단》을 후진 국가들에 파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평화군》의 《선량한》 목적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나 그의 침략적 정체는 더욱더 폭로되고 있으며 후진 국가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최근 가나 신문 《가나 타임스》지는 《〈평화군〉인가 〈전쟁군〉인가?》라는 표제의 사설에서 《평화군》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식민주의의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최근에 진행된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쟈바 단체 대회는 미국 《평화군》을 반대 항의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평화군》 대원들과 미국인 교수들을 철수시킬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와 《원조》의 간판 밑에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기만하며 그들을 영원히 예속시키려고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각성된 인민들은 절대로 그에 속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해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미제의 책동은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윤 상 준

근로자 제 15 호 (루계 299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안쇄 공장

발 행 • 1963년 8월 5일 　 인 쇄 • 1963년 8월 3일

ㄱ—330465 　 값 40 전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장백 혁명 근거지

이 저서는 1930 년대 후반기 항일 무장 투쟁의 전략적 기지로 된 장백 혁명 근거지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를 과학 리론적으로 심도 있게 서술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1) 1930 년대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김 일성 동지의 혁명 근거지 리론,

(2) 장백 혁명 근거지 창설의 력사적 전제,

(3) 장백 혁명 근거지 창설과 공고화를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4) 장백 혁명 근거지가 반일 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서 가지는 력사적 의의 등의 체계로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근거지 창설 및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혔으며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거대한 혁명 업적들을 서술하였다.

또한 이 저서에는 장백 혁명 근거지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정리되였다.

이 저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항일 무장 투쟁사의 연구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연구함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한다.